

RISE UP!



1/5(월)

"일어나라,
예배로 새해를 여는 교회!"

1. 예배 - 하나님이 먼저 임하신다.

"어둠고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2절)는 단순히 사회적인 시대 묘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1절)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영광이 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2. 예배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어둠의 가장 큰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방향 상실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려 세우는 시간입니다. 빛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3. 예배는 세상을 향한 증언이 됩니다.

이사야는 예배의 열매를, 개인의 회복에만 머물지 않고, 빛은 본질적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로 다시 일어설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예배로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은 세상을 향한 가장 설득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4.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오늘, 더 깊은 예배를 통해 신앙이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